

취미의 유전

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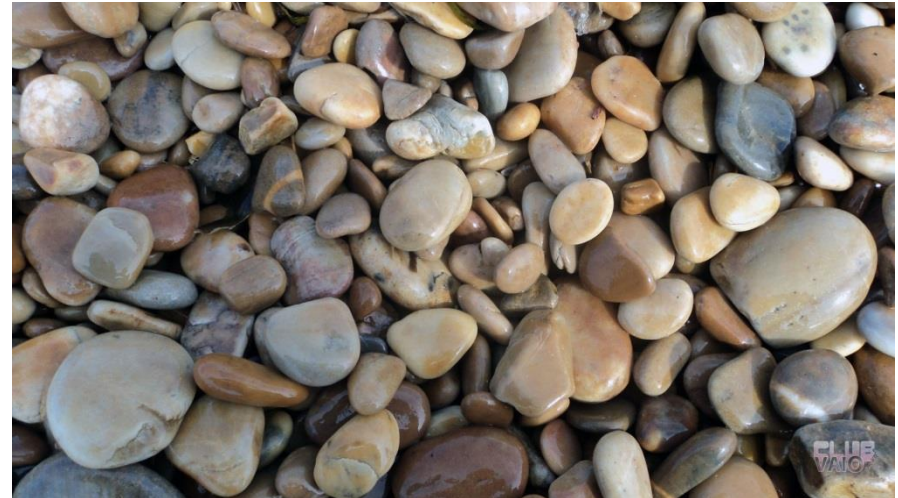
2015/02/26

나쓰메 소세키(夏目漱石, 1867~1916)의 단편소설(1906년)

- 일본 문학사 최대의 거목
- 중국의 루쉰, 한국의 이광수(이광수)에 비견되는 인물
- 현대 일본어의 문체를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
- 지금 읽어도 전혀 옛날 냄새가 나지 않는 모던한 글쓰기를 했던 사람
- 최근에 한국어 전집이 간행되었으며 보통 처음 추천하는 작품은 도련님(1906), 마음(1914).
- 이 작품 취미의 유전은 연구자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이상한 단편. 솔직히 내용도 기억나지 않음.
- 하지만 소세키는 자기만의 철학으로 '자기본위'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으며, 도련님의 주인공 '나' 역시 남들의 말대로 살다가는 재미없는 삶만 살게된다는 신조의 소유자.
- 자기본위 / 취미 / 유전 모두 마음에 들어서 제목으로 삼음.



원가 모았다 : 초등학교 저학년(9세~13세)



Note
Source

우표 : 초등학교 고학년 + 중학교 (14세~17세)



Note :
Source :

음반 : 중3 - 현재 (17세 - 40세 ππ)



Note :
Source :

개념 : 직장인5년차 - 현재 (29세 - 40세)



영한사전

mouse [maʊs]

명 (복수) mice [maɪs]

- 1 새양쥐, 새양쥐속(屬)
- 2 《경멸적·익살》 내
- 3 《구어》 예쁜이 (여자)
- 4 《속어》 (맞아서 상) (위아래로 여닫는 창익) 추(錘), 분동(分銅).
- 5 《컴퓨터》 마우스.

— 鼠 [maʊz] (mous·es[-ɪz]; ~d; mous·ing) 鼠

- 1 ...을 몰아내다, 실재없이 찾아내다.
- 2 (고양이가 쥐를 다루듯이) 거칠게 다루다, 놀리다, 괴롭히다.

LAZION.com

원가를 모으고 분류한다 : 기준을 마련하고 의미를 부여한다

- 원가 모아서 짝을 맞추는 행위에서 일단 쾌감
- 정리를 위해 분류하다보면 나는 왜 이렇게 나누었는가를 스스로에게 해명해야 함
-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음, 이 지점이 바로 취미의 유전자.
- 가장 오래된 자연과학인 천문학이나 지질학도 결국 자연의 증거를 모으고 분류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
- 인문학에서는 이것이 서지학, 문헌학, 고증학, 역사학 등의 형태로 발현
- 학문의 기본은 용어정의이고 그 용어는 학문의 단위가 되는데 개념을 정립해 용어를 정의하려면 용어간의 계통과 분류를 결정해야 함

과도한 문화소비자 / 행복의 미적분학

• 과도한 문화소비자

- 다른걸 다 떠나서 하염없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파고들 것이 필요했다.
- 그것이 우표, 음악, 영화, 문학, 언어학, 역사 등의 형태로 발현.
- 이렇게 싸고, 무해하고, 흥미로운 일이 뭐가 있는가.

• 행복의 미적분학

- 어차피 큰 행복이든 작은 행복이든 행복감 자체의 차이는 크지 않다.
- 그렇다면 깨알같은 일들을 찾아서 작은 행복을 만들자. 이것이 문화생활이고, 미분.
- 미분한 행복을 많이 가져야 하므로 인생을 문화생활에 탕진하자, 적분.
- 시간의 태반을 문화생활에 쓰자. 이렇게 시간을 탐닉하다 죽어버리자.
-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멍청하다. 현재도 미래도 행복하자.